

23-10 2023. 08. 23

현안과 과제

■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

- 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

목 차

■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

- 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남북한의 인구구조 분석	2
3. 종합평가	13
4. 시사점	15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경제센터 : 강 성 현 선임 연구 원 (02-2072-6221, shkang@hri.co.kr)
이 해 정 연구 위 원 (02-2072-6226,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 - 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

■ 개 요

최근 남한과 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UN DESA(사회경제국)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를 활용하여 1965~2070년간 남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 남북한의 인구구조 분석

(전체 인구 현황 및 전망) 2021년 기준 남한의 인구는 5,183만 명, 북한의 인구는 2,597만 명이다. 남한은 이미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북한은 2034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2070년에 이르러 남한 인구는 3,592만 명, 북한 인구는 2,375만 명으로 각각 2021년 대비 69.3%, 91.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위연령 및 기대수명) 1980년대말~1990년대초까지 남북한의 중위연령 및 기대수명은 비슷한 추세를 보여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207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2070년간 중위연령이 경우 남한은 43.4세에서 61.3세로, 북한은 35.6세에서 45.1세로 증가하고, 동기간 기대수명의 경우 남한은 83.7세에서 89.7세로, 북한은 73.3세에서 80.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비) 남북한 모두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여초 사회'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은 2019년부터 여초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어 2021년 성비(여성인구 100명 당 남성인구)는 99.8명에서 2070년 93.9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성비의 경우 1965년 85.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97.8명까지 늘어났으며 2050~2070년간에는 97.8~98.0명 구간을 횡보할 전망이다.

(연령별 인구구조) 남북한 모두 2010년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2021년 기준 남한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7%로 2025년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북한은 2021년 현재 65세 인구 비중이 11.4%로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 사이에 놓여있으며, 2039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 남한과 북한의 65세 인구 비중은 각각 46.5%, 26.1%로, 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 남북한 모두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UN 자료 기준 2021년 0.88명)이다. 다만 2023년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여 2070년 1.31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전체 여성 인구 중 가임기

(15~49)세 여성 인구 비중은 2021년 현재 45.2%나 2070년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25.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 비중은 2021년 각각 1.81명, 47.9%에서 2070년 각각 1.67명, 39.6%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 및 모성 사망) 남한의 유아사망률(출생 1,000명 당 유아 사망자 수)이나 모성 사망비(출생아 10만 명 당 모성 사망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유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 모두 급격한 악화를 겪었으나, 200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 남북한 모두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세가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남한의 생산가능인구 수(전체 인구 대비 비중)는 2021년 현재 3,704만 명(71.5%) 수준이며, 2070년에 1,634만 명(45.5%)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핵심노동인구(25~54세 인구) 비중은 2021년 44.9%에서 2070년 26.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수(전체 인구 대비 비중)는 2021년 현재 1,810만 명(69.7%)으로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1,412만 명(59.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영양결핍을 겪은 영유아 세대가 2020년대에 대부분 핵심노동인구 연령대로 편입되는데, 이전 세대 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구부양비) 남북한 모두 출생률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 인구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남한의 인구부양비는 39.9명인데 2070년까지 119.8명으로 약 3배 증가할 전망이다. 북한의 경우 2021년 현재 43.5명이며, 2070년에 68.2명까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율 및 인구밀도) 북한의 도시화율 및 주요 지역의 인구밀도는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낮다. 2018년 기준, 남한과 북한의 도시화율은 각각 81.5%, 61.9%로 크게 차이가 나나 이후 북한의 도시화율이 증가하면서 점차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전개 속도는 차이가 존재하나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및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인구부양비 증가 등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고령화나 인구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중상소득 국가 혹은 고소득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타 저소득국가에 비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존재한다. 최근 북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개요

○ 최근 남북한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¹⁾에 따르면 남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24.9만 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남한은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
 - 또한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속 38개월간 인구자연증가(출생-사망)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 최근 북한에서도 저출산·고령화를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출산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2002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도 진전되어 가는 상황
 - 김정은 시대 들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시화되자 다산모 치료권 발급, 다자녀가구 주택 우선 배정 및 특별보조금 지급²⁾,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1965~2070년간 남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평가하고자 함

- 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사회경제국)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의 통계를 활용
 - UN DESA의 자료는 1950~2100년간 남북한을 포함한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30여 개의 세부지표를 제공해 국제비교에 용이
 -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 기간은 UN DESA의 북한 통계가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의 추계치와 차이가 크지 않은 1965년부터³⁾ 2022년 보고서의 추계 마지막 시점인 2021년의 향후 50년 이후인 2070년까지로 설정⁴⁾

1) 통계청 보도자료(2023.2.22.),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 최근 북한 당국은 《로동신문》(2023년 1월 26일자),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살림집법"; 《로동신문》(2023년 2월 10일자), "다자녀세대들에 베풀어지는 고마운 혜택" 등의 기사를 통해 다자녀혜택을 선전한 바 있음.

3)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계환 외(2020),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KINU 연구총서 20-22, 통일연구원, pp. 48~58을 참고.

4)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는 1950년~2021년간은 추계치, 2022년~2100년간은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음.

2. 남북한의 인구구조 분석

① 전체 인구 현황 및 전망

○ (현황) 2021년 기준 남한의 인구는 5,183만 명(세계 28위), 북한의 인구는 2,597만 명(세계 54위)으로 남북한의 총인구는 7,780만 명으로 추계

- UN에 따르면 남한 인구는 2013년 5,000만 명 시대에 들어섰으나, 2021년에 이르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음
 - 2021년 기준 남한 인구는 5,183만 명으로 미얀마(5,361만 명), 케냐(5,251만 명)의 뒤를 이은 세계 28위 규모
- 북한 인구는 1988년 2,000만 명 시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에 이르러 2,600만 명 시대에 목전을 두고 있음
 - 2021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597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약 절반 수준이며, 코트디부아르(2,715만 명), 카메룬(2,685만 명)을 이은 세계 54위 규모
- 2021년 기준 남북한 인구 합산 시 총인구는 7,780만 명으로 독일(8,341만 명)의 뒤를 이은 세계 20위에 위치
 - 38개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미국(3억 3,699만 명), 일본(1억 2,461만 명), 터키(8,476만 명), 독일의 뒤를 이은 5위

< 남북한 인구 추계 >

(단위 : 만 명)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남한(A)	3,817	4,412	4,679	4,881	5,151	5,168	5,180	5,184	5,183
북한(B)	1,797	2,080	2,337	2,469	2,552	2,564	2,576	2,587	2,597
A/B	2.1	2.1	2.0	2.0	2.0	2.0	2.0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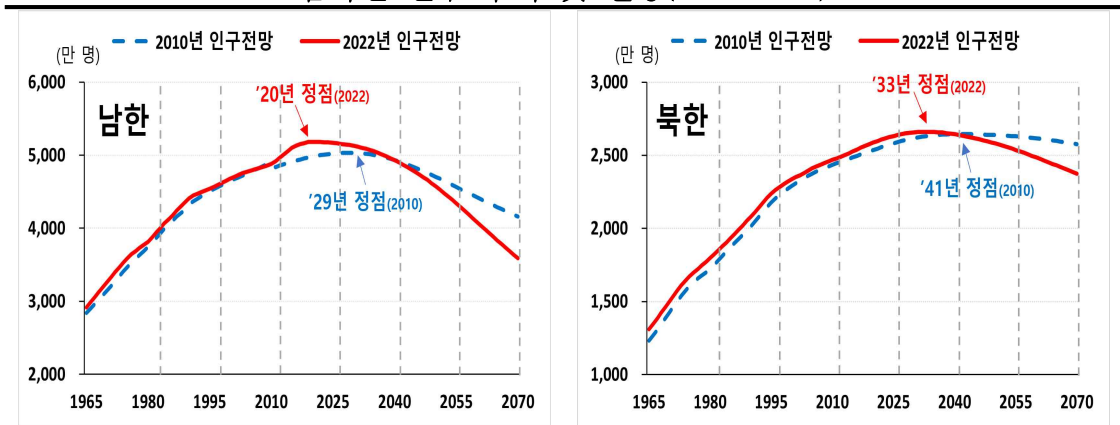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전망) 남한은 2021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세가 점차 가속화되며, 북한 또한 2034년에 이르러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남한의 인구는 2030년 5,129만 명에서 2050년 4,577만 명, 2070년에는 3,592만 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0년 UN의 세계인구전망은 남한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인구가 정점을 찍은 2020년(5,185만 명)부터 2050년까지는 연평균 0.4%씩 감소하여 4,577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50년부터 2070년까지는 연평균 1.2%씩 감소하여 3,59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2021년 대비 69.3% 수준)

- 한편, 북한 인구는 정점을 기록할 2033년 이후 2050년까지 2,581만 명으로 감소,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져 2070년 2,375만 명을 기록할 전망
 - 2010년 UN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04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2022년 전망 기준 2034년으로 8년 앞당겨 짐
 - 북한 인구는 2033년 2,66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50년까지 연평균 0.2%씩 감소하여 2,581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 2050년부터 2070년까지는 연평균 0.5%씩 감소해 2,375만 명까지 하락할 것(2021년 대비 91.5% 수준)으로 보임

< 남북한 인구 추이 및 전망(1965~2070) >



자료 :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주1) 2010년 전망 자료 중 1965~2010년은 추계치, 2011~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

주2) 2022년 전망 자료 중 1965~2021년은 추계치, 2022~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

②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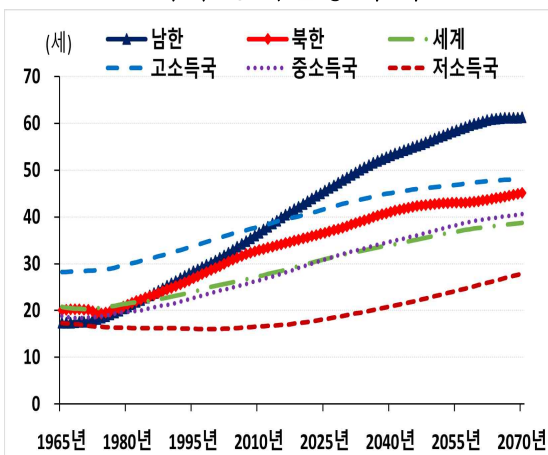
○ (중위연령) 2021년 기준 남북한의 중위연령은 각각 43.4세, 35.6세로 세계 평균 30.0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2070년까지 그 추세가 이어질 전망

- 1980년대까지 남북한의 중위연령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남한의 중위연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음
- 분석기간 중 1984년까지 북한의 중위연령이 남한에 비해 높았으나, 1985년 남한 23.2세, 북한 23.0세로 역전되었음
- 남한의 중위연령은 2021년 43.4세에서 2070년 61.3세로 증가하여, 동 기간 세계 평균(2021년 30.0세, 2070년 38.8세)과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중위연령은 2021년 35.6세에서 2070년 45.1세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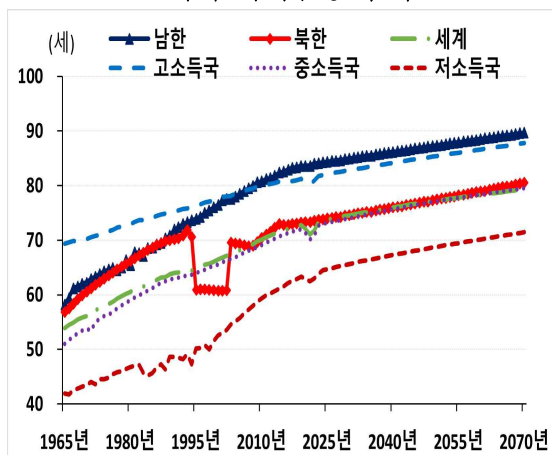
○ (기대수명) 199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의 기대수명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기대수명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격차가 벌어졌음

- 2021년 기준 남한과 북한의 기대수명은 각각 83.7세, 73.3세로 약 10.4세 가량 차이가 나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2070년에는 각각 89.7세, 80.5세로 늘어날 전망
- 남한과 북한의 기대수명 1990년대 초까지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북한의 기대수명이 1994년 70.7세에서 1995년 60.9세로 급락하면서 격차가 크게 증가

< 세계 중위연령 추이 >



< 세계 기대수명 추이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주1) 중위연령은 한 시점에서 인구의 '중앙값'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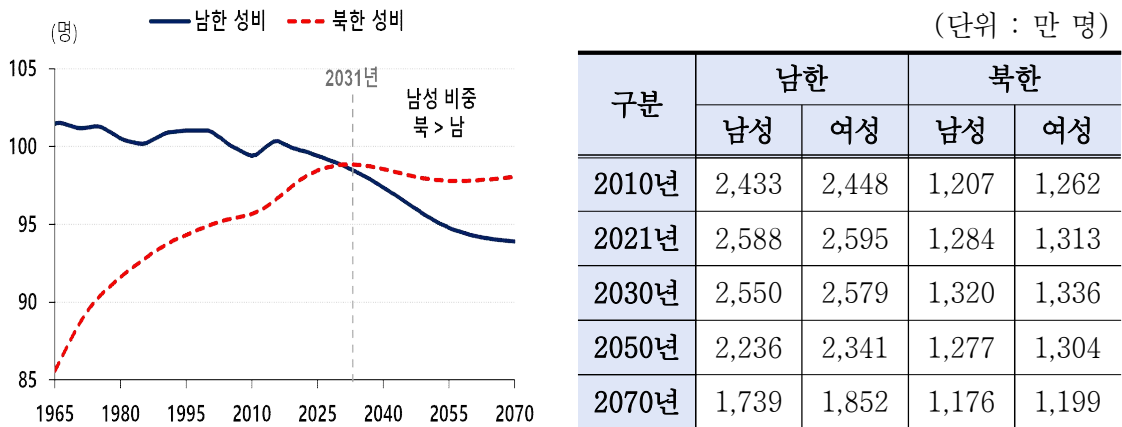
주2)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함.

주3)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

○ (성비) 남북한 모두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여초 사회'를 유지

- 남한은 2019년부터 여초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
 - 2021년 남한의 성비(여성인구 100명 당 남성인구)는 99.8명임(1965~2005년, 2014~2018년간은 남초 사회)
 - 남한의 여초 현상은 2020년대에 보다 가속화되어 남녀 성비는 2030년 98.9명, 2050년 95.5명, 2070년 93.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 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됨(2021~2070년간 남성은 연평균 0.8%씩, 여성은 연평균 0.7%씩 감소)
- 2021년 기준 북한 총인구 2,597만 명 중 남자는 1,284만 명, 여자는 1,313만 명으로 성비가 97.8명인 여초 사회가 유지되고 있음
 - 북한의 남성 인구 비중은 분석 자료의 추계 기간(1965~2021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성비는 1965년 85.6명, 1974년 90.0명, 2021년 97.8명을 기록
 - 2029년~36년간 성비는 분석 기간 중 최고점인 98.8명 수준을 유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0년~2070년간에는 97.8명~98.0명 구간을 횡보할 전망
 - 한편, 남한과 북한의 성비는 2031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되며, 그 격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

< 남북한 성비 및 성별 인구의 추이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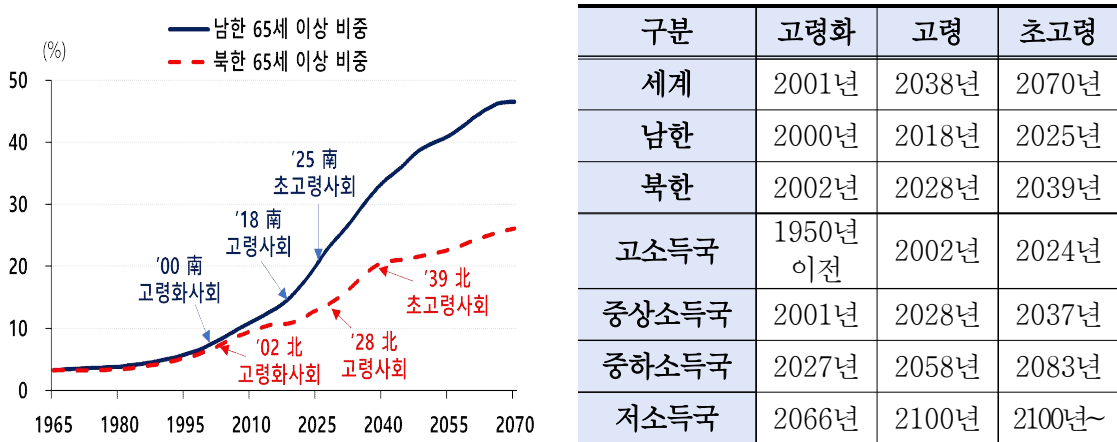
주1) 성비는 여성 인구 100명 당 남성 인구 수.

주2)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

○ (연령별 인구구조) 남북한 모두 2010년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음⁵⁾

- 2021년 현재 남한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7%로서 2025년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2018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든 남한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기간이 25년(2000~2025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현재 남한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번째로 낮으나, 2046년에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 2046년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국가는 남한(37.3%), 일본(36.9%), 이탈리아(36.6%), 스페인(35.2%) 포르투갈(33.5%)이 예상된다.
- 북한의 경우, 2021년 현재 65세 인구 비중이 11.4%로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으며, 2039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2002년 65세 인구 비중이 7.0%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8년 고령사회, 203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북한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기간이 37년(2002~2039년)으로 남한에 비해 고령화가 느리게 전개될 것으로 보임
 - 특히, 203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더라도 2070년 북한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6.1%로 남한 46.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남북한 고령화 추이 및 속도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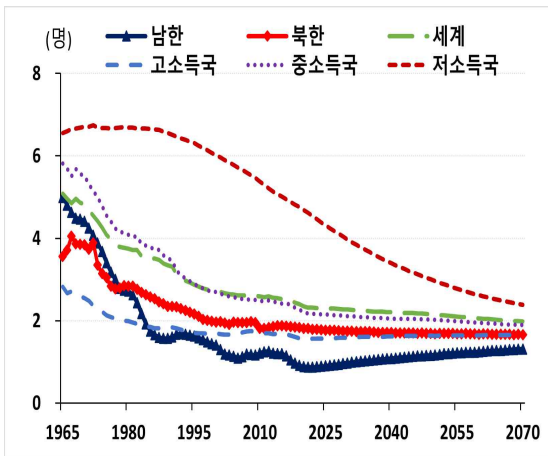
주: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5) 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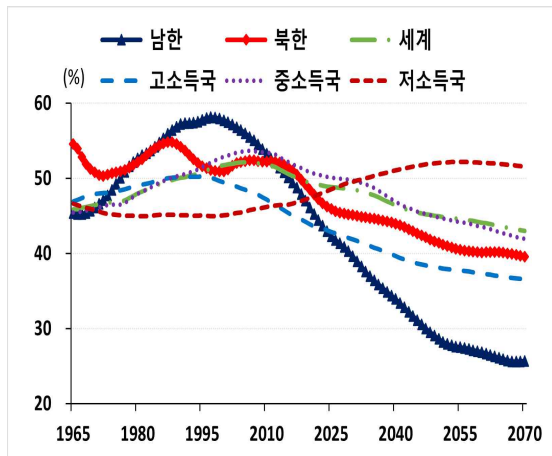
○ (출산) 남북한 모두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부터 소폭 상승세 전환이 전망됨

- 2021년 현재 남한의 합계출산율⁶⁾은 0.88명으로 세계 최하위수준이고, 전체 여성인구 중 가임기(15-49세) 여성 비중은 45.2%로 급격한 감소세에 놓여있음
 -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인구대체율 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지속하락세에 놓여 2021년 현재 0.88명 수준⁷⁾
 - 다만, 2023년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여 2030년 0.97명, 2050년 1.17명, 2070년 1.3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여성인구 중 가임기 여성 비중은 2021년 현재 45.2%로, 2070년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5.7%로 줄어들 전망(2021년 대비 $\Delta 19.5\%p$)
- 2021년 현재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인구대체율 2.1명에 비해 낮으며, 전체 여성인구 중 가임기 여성 비중은 47.9%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북한의 합계출산율과 전체 여성인구 중 가임기 여성 비중은 고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의 추세 사이에 놓여있는 모습
 -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1명에서 2070년 1.67명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
 - 전체 여성인구 중 가임기 여성 비중은 정점이었던 2006~07년(52.4%)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47.9%를 기록했으며, 2070년 39.6%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2021년 대비 $\Delta 8.3\%p$)

< 세계 합계출산율 추이 >



< 여성인구 중 가임기(15-49세) 여성 비중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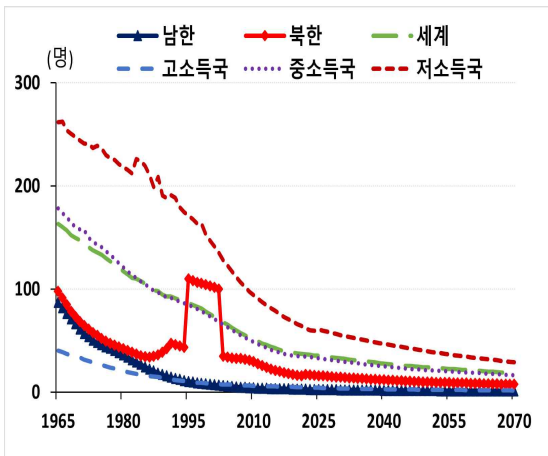
- 주1)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주2)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6)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
 7) 남한 통계청은 2022년 출생아 수는 24.9만 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유아 및 모성 사망)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유아 사망률 및 모성 사망비가 개선되고 있음

- 2021년 현재 남한과 북한의 출생 1,000명 당 유아(5세미만) 사망자수는 각각 2.9명, 15.8명임
 - 남한의 유아사망률은 1997년 9.1명을 기록한 이후 고소득국가 평균(9.3명)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2.9명에서 2070년까지 1.1명 수준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
 - 북한의 유아사망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여 1990년대 '고난의행군'을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3년에 이르러서야 1980년대 수준을 회복하였음. 2021년 현재 15.8명 수준이며, 2070년 7.6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현재, 남북한의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자 수는 각각 8.1명, 106명인데, 북한의 경우 1990~2000년대에 급격한 등락을 경험한 바 있음
 - 2000년 이후 남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옴
 - 북한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상소득국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경제위기(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2001년 185.6명까지 증가하였음
 - 유아사망률과 유사하게 2003년부터 하락세가 나타났으며(2003~12년 평균 127.3명),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106~108명 수준을 유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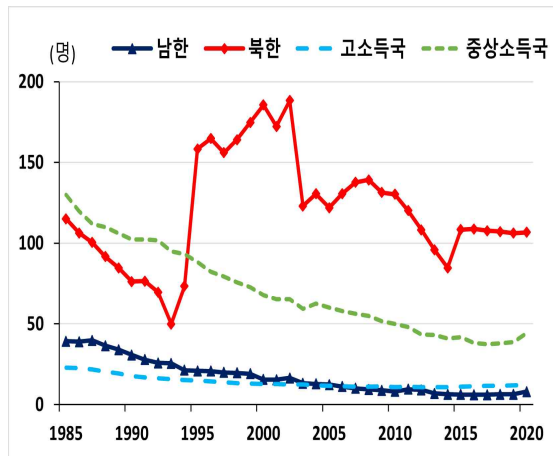
< 세계 유아(5세 미만)사망률 추이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주1) 출생 1,000명 당 5세 미만의 사망자 수.
 주2)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 세계 모성 사망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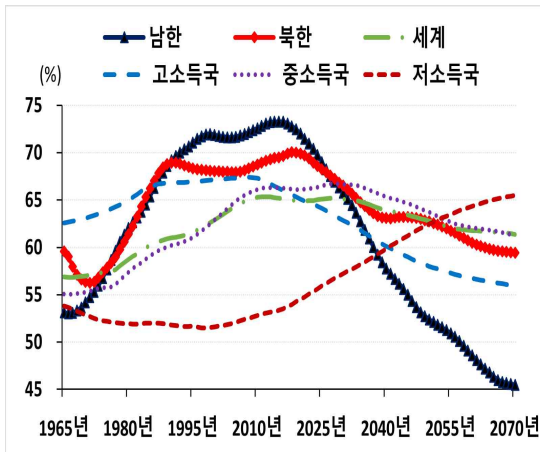
자료: WHO.

주: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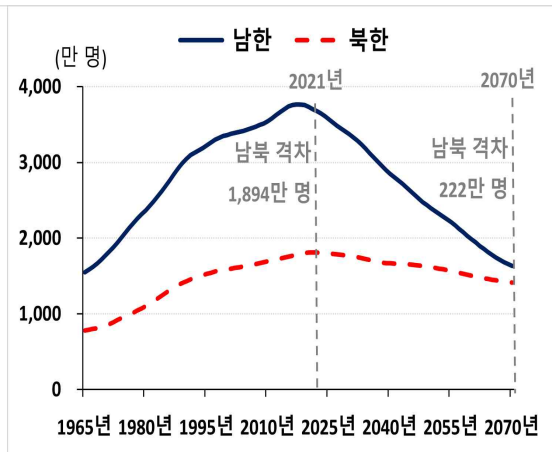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남한은 2018년, 북한은 2022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진행 중

- 2021년 현재 남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4만 명으로 2018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70년에는 1,634만 명에 불과할 전망
 -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4년 73.3%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1년 현재 7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남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세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여 2030년 65.8%, 2050년 52.4%, 2070년 45.5%까지 감소할 전망
 - ※ 세계 생산가능인구 평균 비중은 2021년 64.9%, 2030년 65.1%, 2050년 62.8%, 2070년 61.4%로 2028년(65.2%)부터 본격적인 감소세가 전망됨.
-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현재 1,810만 명으로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에 이르러 1,412만 명으로 줄어듦 전망
 -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8년 70.0%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현재 69.7% 수준임
 - 향후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0년 66.5%, 2050년 62.7%, 2070년 59.4%로 세계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한편,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 격차는 2021년 1,894만 명에서 2070년 2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추이 >



<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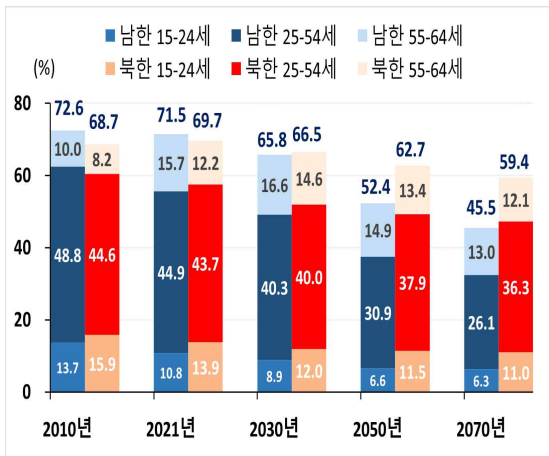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주1)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주2) (좌)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우)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수.

- 핵심노동인구 25~54세⁸⁾ 비중의 경우, 북한에 비해 남한의 가파른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2021년 현재 전체 인구 대비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남한 44.9%, 북한 43.7%로 유사하나, 2070년에 이르러서는 남한 26.1%, 북한 36.3%로 역전되고, 남북 간 격차도 확대될 전망
 - 특히, 2043년 남한의 중위연령이 54.2세로 핵심노동인구 연령 상한 54세를 넘게 되는 등 점차 남한 생산가능인구층의 고령화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임
 - ※ 남한의 핵심노동인구 수는 2021년 2,326만 명, 2050년 1,414만 명, 2070년 938만 명, 북한의 핵심노동인구 수는 2021년 1,134만 명, 2050년 977만 명, 2070년 863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 한편,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영양결핍을 겪은 영유아 세대가 2020년대에 대부분 핵심노동인구 연령대로 편입되는데, 이전 세대 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영유아 시기 영양실조를 경험한 인구는 평생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정서적·인간적 발전에 장애를 겪게 되어 평생생산성(life-time productivity)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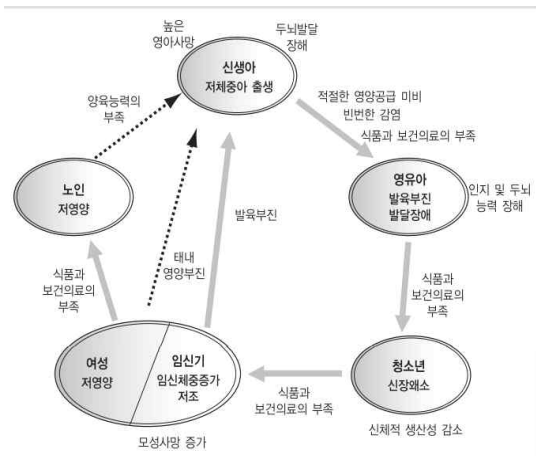
< 남북한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주1)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 주2)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영양불량이 미치는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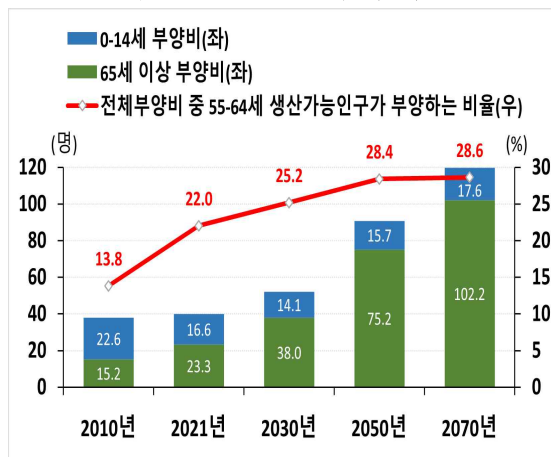
자료: ACC/SCN(2000); 김혜련(2007)에서 재인용.

8) ILO(국제노동기구)는 25~54세 인구를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로 정의하고 있음.
 9) 조성은·외(2018), 『남북 인구구조 변화 분석과 보건복지정책 방향 연구』,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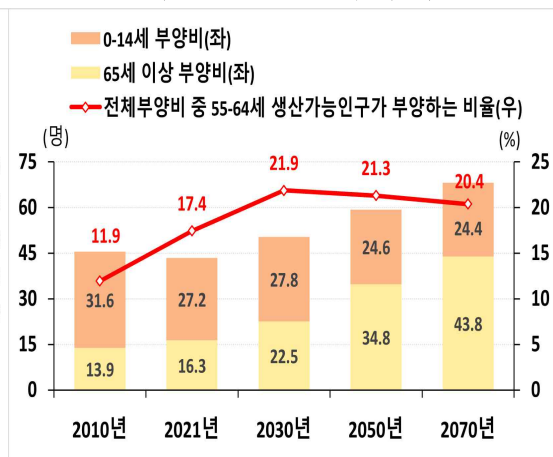
○ (인구부양비) 남북한 모두 출생률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 인구부양비가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현재 남한의 인구부양비¹⁰⁾는 39.9명이며, 2070년까지 119.8명으로 약 3배 증가할 전망
 - 남한의 인구부양비는 2014년 최저점(36.5명)을 기록한 뒤 2017년부터 상승 중
 - 유소년(0~14세) 인구부양비는 하락 중인데 반해 고령(65세 이상) 인구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 중 핵심노동인구(25~54세)가 부양하는 비율은 2021년 25.1명에서, 2070년 68.8명까지 증가하고, 55~64세인구가 부양하는 비율은 동기간 8.8명에서 34.3명으로 늘어날 전망
- 북한의 인구부양비는 2021년 현재 43.5명이며, 2070년까지 68.2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북한의 인구부양비는 2018년 최저점(42.8명)을 기록한 뒤 2020년부터 상승 중
 - 고령 인구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유소년 인구부양비는 남한보다 늦은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핵심노동인구가 부양하는 비율은 2021년 27.2명에서, 2070년 41.7명까지 늘고, 55~64세인구가 부양하는 비율은 동기간 7.6명에서 13.9명으로 증가할 전망

< 남한 인구부양비 추이 >



< 북한 인구부양비 추이 >



자료: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주1) 0-14세 및 65세 이상 부양비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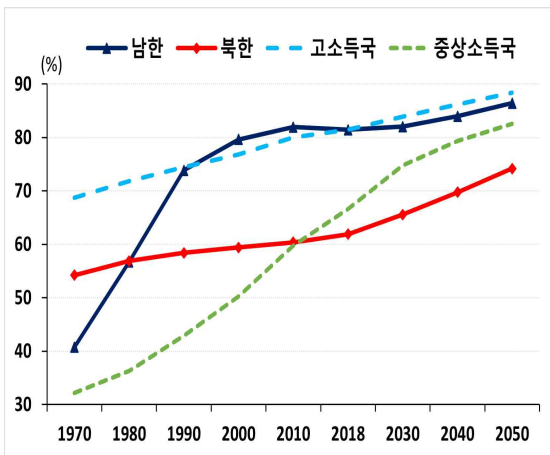
주2) 2021년까지는 추계치, 2022년~2070년은 중위값 기준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구성.

10)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 당 부양할 유소년(0-14세 이하), 고령(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함.

○ (도시화율 및 인구밀도) 북한의 도시화율 및 주요 지역의 인구밀도는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낮음

- 2018년 기준, 남한과 북한의 도시화율은 각각 81.5%, 61.9%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 이후 북한의 도시화율이 증가하면서 점차 격차가 줄어들 전망
 - 남한의 도시화율은 1970년 21.4%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해 1990년대에 이르러 고소득국 수준으로 올라섰음
 - 한편, 북한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았으나, 정체가 지속되어 1980년대부터 남한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음
 - 다만, 2018년 이후 남한의 도시화율이 정체되는 가운데 북한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50년 남북한의 도시화율은 각각 86.4%, 74.2%에 이를 전망
 - 한편,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밀도 또한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서울의 인구밀도는 15,650명/km²(2021년)으로 평양의 1,155명/km²(2018년)에 비해 13배 이상 높음
 - 또한, 평양 외 도시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북한 지역(청진, 함흥, 원산, 신의주)은 4개에 불과하며 남한의 광역시급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음
- ※ UN DESA(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북한 지역은 평양(304만 명), 청진(64만 명), 함흥(56만 명), 원산(35만 명), 신의주(33만 명)임.

< 세계 도시화율 추이 >



자료: UN DESA, 2018 Revision of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 주1) 전체 인구 대비 도시 거주 인구 비율.
- 주2) 2018년까지는 추계치, 2019년~2050년은 전망치.

< 남북한의 주요 도시 인구밀도 >

(단위 : 명/km²)

남한(2021년)		북한(2018년)	
지역	인구밀도	지역	인구밀도
서울	15,650	평양	1,155
부산	4,316	청진	344
인천	2,773	함흥	1,004
대구	2,702	원산	1,109
대전	2,743	신의주	1,811

자료: 남한은 한국 통계청, 북한은 UN DESA, 한국 통계청 및 통일부 등 자료 활용.

- 주1) 인구밀도 = 총인구 ÷ 면적.
- 주2) 북한은 2018년 기준 UN DESA가 추계한 도시 인구 30만 명 이상 지역임.

3. 종합평가

○ 전개 속도는 차이가 존재하나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 및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인구부양비 증가 등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이후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46년에 이르러 전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15~49세 가임기 여성인구도 빠르게 감소하여 출산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특히 25~54세 핵심노동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공급에 차질을 겪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을 가능성도 존재
 -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부양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은퇴시기에 가까운 5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인구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남한에 비해 고령화나 인구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구조 변화가 중상소득국가 혹은 고소득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타 저소득국가에 비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존재
 -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는 남한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다만, 2021년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이 저소득국가군에 해당하나 인구구조 변화는 중상소득국가군이나 고소득국가군과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음
 - 이는 북한 당국이 인구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1970~1980년대 인구역제정책을 펼친 상황에서 1990년대 경제위기가 겹쳐 나타난 부작용으로 판단됨
 - 자본, 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에 충분한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조업 부문을 복구,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한편,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유년기 인구가 20~30대로 성장하면서 당시 영양결핍 경험이 경제활동이나 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 남북한 인구구조 추계 및 전망 종합 >

구분	국가	2021년	2050년	2070년	비고
인구	남한	5,183만 명	4,577만 명	3,592만 명	2021년~ 감소
	북한	2,597만 명	2,581만 명	2,375만 명	2034년~ 감소
중위연령	남한	43.4세	56.7세	61.3세	-
	북한	35.6세	42.8세	45.1세	
기대수명	남한	83.7세	87.4세	89.7세	-
	북한	73.3세	77.5세	80.5세	
성비	남한	99.8명	95.5명	93.9명	2031년~ 남북 성비 역전
	북한	97.8명	97.9명	98.0명	
65세 이상 인구 비중	남한	16.7%	39.4%	46.5%	2025년~ 초고령사회
	북한	11.4%	21.8%	26.1%	2039년~ 초고령사회
합계출산율	남한	0.88명	1.17명	1.31명	-
	북한	1.81명	1.69명	1.67명	
여성인구 중 가입기(15-49세) 여성 비중	남한	45.2%	28.6%	25.7%	-
	북한	47.9%	41.4%	39.6%	
유아사망률	남한	2.9명	1.6명	1.1명	-
	북한	15.8명	9.9명	7.6명	
생산가능인구 수(비중)	남한	3,704만 명 (71.5%)	2,398만 명 (52.4%)	1,634만 명 (45.5%)	생산가능인구 수 2018년~ 감소
	북한	1,810만 명 (69.7%)	1,619만 명 (62.7%)	1,412만 명 (59.4%)	생산가능인구 수 2022년~ 감소
인구부양비	남한	39.9명	90.8명	119.8명	-
	북한	43.5명	59.4명	68.2명	
도시화율	남한	81.4%	86.4%	-	2018년(추계치) 81.5%
	북한	62.6%	74.2%		2018년(추계치) 61.9%

자료: 도시화율은 UN DESA, 2018 Revision of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그 외 나머지는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주1) 도시화율을 제외한 지표의 경우 2021년은 추계치, 2050년과 2070년은 중위값 전망치.
- 주2) 중위연령은 한 시점에서 인구의 '중앙값'.
- 주3)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주4) 성비는 여성 인구 100명 당 남성 인구 수.
- 주5) 합계출산율은 가입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주6) 유아사망률은 출생 1,000명 당 5세 미만의 사망자 수.
- 주7) 생산가능인구 수는 15~64세 인구 수,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중.
- 주8) 인구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유소년(0~14세) 및 고령(65세 이상) 인구 수.
- 주9)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대비 도시 거주 인구 비율로 2021년과 2050년은 전망치.

4. 시사점

- 저소득국가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성장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북한은 저소득국가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문제와 인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하는 상황
- 북한은 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결속을 독려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권리보장법, 살림집법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 혜택을 법제화하고 있음
- 북한이 만성적 경제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쉽지 않은 두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HRI**

< 참고 > '2022년 세계인구전망'의 소득별 국가분류

- UN DESA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2년 7월 국가별 1인당 GNI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매년 7월 세계은행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각 국가를 4개 그룹(고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중하소득국가, 저소득국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중상소득국가와 중하소득국가는 중소득국으로도 통칭함.

- 한국은 2003년 회계연도에 중상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격상되었으며, 북한은 2000년 회계연도에 중하소득국가에서 저소득국가로 격하되어 2023년 회계연도까지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22년 세계인구전망'의 소득별 국가분류 >

구분	1인당 GNI	국가 수	비고
고소득국가	\$13,205 초과	89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브루나이, 캐나다, 케이맨 제도, 칠레, 홍콩, 마카오, 대만, 크로아티아, 퀴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과들루프, 괌,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저지섬,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마르티니크, 마요트, 모나코, 나우루,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노르웨이, 오만,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한국 , 레위니옹, 루마니아, 생마르텔레미,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마틴(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산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신트라르텐 네덜란드령,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우루과이
중상소득국가	\$4,256~\$13,205	54	알바니아, 아메리칸 사모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나와,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적도기니, 피지, 가봉, 조지아,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북마케도니아, 팔라우,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태국, 통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구분	1인당 GNI	국가 수	비고
중하소득국가	\$1,086~ \$4,255	54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닌, 부탄,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코모로스,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가나,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연방, 몽골, 모로코, 미얀마,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튀니지,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짐바브웨
저소득국가	\$1,085 이하	28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북한 , 콩고민주공화국, 에트리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토고, 우간다, 예멘, 잠비아

자료: UN DESA.

주1) 1인당 GNI는 2021년 자료로 세계은행의 FY23(2022.7~2023.6)의 분류 기준을 따름.

주2) 중상소득국가와 중하소득국가는 중소득국가로 통칭함.

참고 문헌

- 김혜련(2007),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년 10월 통권 13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이석·이철희·정형곤·김슬기·김예슬(2018). 『남북 인구구조 변화 분석과 보건복지정책 방향 연구』. 정책보고서 2018-4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제환·김석진·최지영·김수경(2020).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KINU 연구총서 20-22. 통일연구원.
- 통계청 보도자료(2023.2.22.).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Online Edition.
- _____.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Online Edition.
- _____. (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archive.
-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 WHO. “Maternal Mortality Levels and Trend 2000 to 202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통일부.
- 《로동신문》 (2023년 1월 26일자).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살림집법”.
- _____. (2023년 2월 10일자). “다자녀세대들에 베풀어지는 고마운 혜택”.